



외국인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자 원미경씨

새이름에 수준급 한국어실력
한국사람 만드는 베트남여성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6-03-29 제11면

남동구다문화센터서 말과 요리 배워
하루 4시간 상담 통해 문화적응 도와
남편 지원 큰힘 "첫번째 목표는 대학"

"저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싶어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자 원미경(26)씨. 베트남 출신인 그녀는 친구 소개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10년 4월 결혼했다. 이후 남편을 따라 인천에 터를 잡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아이도 둘 낳았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누엔티배. 새 이름은 남편이 지었다고 한다.

미경씨는 최근 문을 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남동구 씨티은행 빌딩에서 인천새마을회 건물 3층으로 이전, 지난 21일 개소했다.

"언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베트남에서 자기소개를 할 정도?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웠는데, 한국 사람은 말이 빨라서 힘들었습니다."

미경씨는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니며 한국어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서 "그곳을 몰랐다면 이렇게 빨리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유로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을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는 좋은 일이잖아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자 원미경씨.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미경씨는 "남편 또는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적지 않다"며 "상담을 통해 자기 생각과 한국 문화와의 차이를 알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건 중요하다.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를 한다. 남은 시간엔 고졸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수업도 듣는다. 육아를 하면서 공부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덕분이라고 한다.

미경씨는 "첫 번째 목표는 대학 진학, 두 번째는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이라며 "봉사활동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는 미경씨와 같은 자원봉사 12명이 교대로 상담업무를 보고 있다. 센터는 내달부터 수준별 한국어 교실도 운영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